

청년여성, 일 때문에 아픈거야

산재 승인 비율이 현저히 낮은 청년 여성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호제도를 홍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건강연대의 카툰이 7월 4일에 공개되었습니다. 함께 보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2차 공개는 7월 11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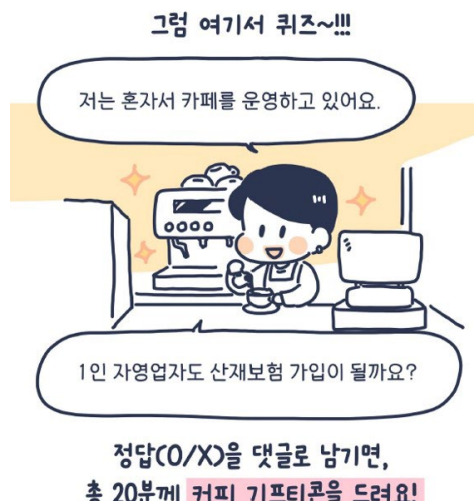


그래서 다행히 동생은
회사의 산재처리를 통해



발가락 부상이 다 나을 때까지
모든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음 상황은 어떨까.



“미래를 꿈꾸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형제복지원 사건은 세상에 알려진 후 35년만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불법 구금과 강제 노역, 학습과 사회성이 성장할 기회 등이 박탈된 채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을 나온 후에도 형제복지원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큰 이유가 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다는 것이 여전히 현재 진행중임을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봅니다.



〈부산일보 2020.2.9〉

수용 상황

어릴 때 집에서는 ‘손정민’으로 불렸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카드 작성할 때도 손정민으로 썼는데 나중에 호적을 보니 이름이 ‘손정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형과 누나는 어머니가 데려가고 저는 아버지와 살게 되면서 계모, 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 살

게 됐습니다. 진주 봉원 국민학교에 입학했다가 이사해서 봉래 국민학교로 전학을 해서 다녔습니다. 2학년 마칠 때였는데 아버지와 부산 친척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부산역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화장실 간다 그랬나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른 두 명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왔는데 아버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부산역 앞에 있는 파출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주시 장대동 77-24. 함양 사는 할아버지 주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집 주소를 말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 다. 저를 바로 아래 중부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아버지와 같이 왔으니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했지만 그게 다 무시됐습니다. 거기서 또 부산시청으로 보내졌습니다. 사회복지계인가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애들이 네다섯 명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형제복지원 차에 태워졌습니다. 1 톤짜리 탑차 같은 데에 타니 캄캄해서 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 다. 내릴 때 문이 열리고 불빛이 확 들어오는데 아주 무서웠습니 다. 덩치 큰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딱 서서 내리라고 하니까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 다. 더 어린애들은 울기도 했습니다. 왜 왔는지,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습니 다. 도착해서 들어가니 입고 있던 옷을 ‘형제원’이라고 마크가 딱 찍힌 파란 추리닝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애, 어른 구분 없이 신입 소대에 넣었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원훈 등을 외우게 했습니다. 못 외우면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 다. 신입 교육도 받는데 “간부들 말을 무조건 잘 들어야 한다.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소대 생활

1981 년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번호 들고 사진 찍을 때 적힌 수용 번호가 81-2623 번으로 기억합니다. 신입 소대에서 아동소대로 넘어갔는데 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동소대 조장은 김영환, 그 사람이 “튀김”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 다. 목에 화상 흉터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동소대에서 몇 개월 있다가 청소년 소대인 9 소대로 갔습니 다. 9 소대는 형제원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빠릿빠릿한 아이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13 살부터 17 살 사

이 아이들이 있는데 체육대회나 행사를 하면 9 소대가 쓸었습니다. 나올 때까지 9 소대에 계속 있었습니다.

9 소대 침상은 철로 만든 2 층 침대가 양쪽으로 한 스무 개씩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대원이 50 명은 채 안 된 것 같고 형제원 이름이 찍힌 모포 한 종류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썼습니다. 겨울에도 다른 이불을 주지 않아서 추웠습니다. 겨울에는 난로 두 개가 있었는데도 추웠습니다. 저는 9 소대에서 소지 반장을 했습니다. 소지 반장은 서무 아니면 조장이 시켜주는 것인데, 우리 소대에는 소지가 저 포함해서 3 명이고, 주로 청소하고 빨래를 세탁실에 갖다주는 일을 했습니다. 한 소대에 소대장 1 명, 서무 1 명, 조장 3 명이 있고, 그리고 소지 3 명이 있는 겁니다.

6 시 전에 음악이 나오면 전부 칼같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쪽 복도에 앉아서 소대에서 예배를 봅니다. 서무가 예배를 주도하는데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찬송가 한두 곡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면을 합니다. 세면을 하고 나면 중대장이 점호를 돕니다. 1 소대부터 28 소대까지 쪽 돌아앉아서 점호를 하는데, 일렬로 침대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습니다. 소대장 들어오면 번호를 몇 초 만에 순식간에 1 번부터 50 번까지 대야 합니다. 못하면 맞는 겁니다. 점호 끝나면 아침 밥을 먹는데 ‘선착순’ 있는 날은 그냥 후루룩 마시고 나오는 겁니다. 선착순으로 10 등 안에 못 들면 밥은 밥대로 못 먹고, 맞는 거죠. 그런 날이 빈번합니다. 선착순 없는 날은 운이 좋은 날이라 편하게 먹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식당 앞에 줄 맞춰서 서 있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완전 군대식입니다. 9 살, 10 살 먹은 애들이 군인처럼 제식 훈련을 받고, 동요는 몰라도 웬만한 군가는 다 압니다. 밥 먹고 나면 각자 철공소, 나전칠기, 낚시공장 같은 공장으로 가고 아동 소대 애들은 학교 가고, 일 못하는 애들은 내무반 청소하고, 대운동장에 가서 제식 훈련도 하고, 놀지는 못합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일하고 저녁 먹고. 1 년 365 일 반복이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잘못하면 단체로 맞고, 단체 기합으로 히로시마, 원산폭격 그런 기합을 받습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 오늘도 맞는가 보다, 죽지만 안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도 소대에서는 잠시 휴식 시

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조장이나 서무들 눈에 띄면 혼나니까 소대원끼리 길게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평생 친구 관계를 맺는 게 어렵습니다. 감정 표현을 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학교나 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친구도 사귀고 어른들하고 관계도 맺고 해야 하는데 눈치 보며 비슷한 나이끼리 단체생활만 한 것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출 실패

84년 인가 9소대 있을 때, 한번 도망쳤습니다. 9소대에서 소지 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지 반장은 애들보다는 조금 덜 맞고 여유 시간이 조금 있는 겁니다. 소지가 되서는 청소를 해야 하는데, 내무반 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소대 주위로 뱅 돌아가면서 청소 다 해야 합니다. 그나마 소지들은 열외 될 때가 있고, 단체 기합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궁리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도망가는 애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아 나도 도망가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취침 들어가면 한 사람이 2시간씩, 아침 6시까지 교대로 불침번을 서는데 불침번 설 때, 화장실을 통해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소대 내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라 가득 차면 밖에서 퍼낼 수 있게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 철문으로 나가려고 재래식 변기를 깼습니다. 변기 아래로 빠져나가긴 했는데, 문에 고개 내밀자마자 경비한테 딱 걸렸습니다. 밖을 지키는 경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대장실로 끌려갔습니다. 선도실에서 중대장한테 야구방망이로 맞을 때 쇠골이 부러졌습니다. 맞고 기절했는데 지금도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그대로 뼈가 붙다 보니 어긋나 버렸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나온 후에 수술을 해서 이 정도입니다. 중대장 이름이 김광석이었는데 박인근이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중대장실에 거기는 야구방망이가 많습니다. 거기서 중대장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애들을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그때 내가 안 죽은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맞고도 의무실에 안 보내줬습니다. 가도 의사는 없이 원생들이 가운 입고, 그냥 배 아프다고 오면 배에 빨간 약 발라주고, 머리 아프다고 오면 머리에 빨간 약 발라주는 끝이긴 합니다.



〈형제복지원의 실태를 재현한 모형 작품_한종선〉

폭행

소지하는 동안은 좀 나았지만, 그 전 한 3년은 생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조건 맞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도 단체로 맞고. 맞다가 기절하는 애들도 있고. 그 애가 실려 나가면 다음 날 안 들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대별로 칠판에 전체 인원, 전원 인원, 퇴소 인원이 몇 명인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소대장에게 맞다가 실려 나간 아이가 다음날 퇴소 숫자로 표시됐습니다. 귀가 조치됐다는데 밤에 맞다가 끌려 나간 애가 다음 날 아침에 집에 보내졌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는 죽었다고 수군댔습니다. 새마음교회 앞에 무덤이 많은데, 거기에 묻는 거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나마 나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맞았어도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지 반장은 좀 열외가 되니 다른 애들보다 덜 맞았지만 그래도 생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맞는 것을 슬하게 봤어도 도와준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살아남으려면 내

가 안 맞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렸다가는 내가 더 맞을 게 뻔하니까 그런 생각은 사치입니다. 소지 반장은 통솔, 관리는 해도 소대원을 때릴 위치가 아니어서 때려 본 일은 없습니다.

생활

먹는 것은 부실했습니다. 1식 3찬 나오고, 오전 오후 간식으로 동그란 빵 하나에 콩국 한 그릇 나오는데 늘 배가 고팠습니다. 주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먹을 것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여름 성경학교 하면 사탕이나 하나씩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니 영양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목욕은 목욕탕에서 일주일에 한 번 했습니다. 소대별로 들어가서 물 끼얹고 쪽 앉아서 때 밀어주고, 또 반대로 돌아앉아서 때 밀어주고, 다시 물 끼얹고 머리 감고 나오는 겁니다. 물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치약도 없어서 소금으로 이빨을 닦고 칫솔도 모가 완전히 다 누워야 바꿔줍니다. 옷은 봄 여름 가을까지 추리닝인데 여름에는 반팔 하나씩 췌고 겨울은 국방색 바지에, 검은 잠바 하나 췌었습니다. 형제원 마크 다 찍혀져 있었습니다. 신발은 거의 고무신 신고 다녔고 양말은 주긴 췌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쉰넷인데 또래에 비해 치아 상태가 나쁩니다. 윗니가 거의 없어서 지금은 틀니를 하고 아랫니도 임플란트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참 자랄 나이에 제대로 못 먹었지, 제대로 치아 관리도 못 받았고, 겨우 소금으로 이를 닦고, 얼굴을 매일 얻어터지니 이가 성할 리가 없었겠다 싶습니다.

교회

교회는 일주일에 삼 일 가지만 일요일은 두 번 갔기 때문에 일주일에 네 번 갔습니다. 그건 무조건 가야 합니다. 교회가 엄청 큰데 전체 인원을 다 앉혀 놓고 임용수 목사가 설교하고, 원장이 할 얘기 있으면 했습니다. 잘못된 애들이 있으면 불러내서 직접 때리고. 박인근이 권투를 했다고 했나 펀치를 잘 날립니다. 그 교회에서 딱 세워놓고 애들을 그냥 때립니다. 완

전 인민 재판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웨하스와 산도, 그 두 가지를 줬습니다. 종교를 강제로 가지게 한 것인데, 지금도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꾼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6〉

강제 노동

81년도에 들어갔을 때, 산꼭대기에 새마음교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소대 몇 개월 있으면서 마대자루를 지고 날랐습니다. 쌀 포대 양쪽에 손잡을 공간만 남기고 흙을 다 채워서 지고 날랐습니다. 물가에서 퍼와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흙이었는데 겨울에 장갑도 없이 마대자루를 잡으면 손이 자루에 얼어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억지로 떼면 손 가죽이 벗겨지고 그랬습니다. 운동장에서 새마음교회까지 그걸 들고 하루에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양을 못 맞추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못한 만큼 맞아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흙 나르고 토요일은 내무 사열했습니다. 중대장이 소대마다 돌아가면서 내무 사열을 하는데 그날은 소대가 완전히 반짝반짝해야 했습니다. 내무 사열하고 나면 운동장에서 제식 훈련을 무조건 받았습니다. 북한 열병식처럼 각을 맞추고 한 방향으로 가다가 짹 퍼져서도 가고, 일자로도 가고, 군대식으로 이것 계속 연습했습니다.

퇴소 경위

형제복지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서신’ 서식이 있습니다. 그걸 집에다가 보내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여기 있으니 와서 확인을 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거기다 자기 이름과 주소를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그 서신을 몇 번 집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내줬는지는 모릅니다. 네다섯 번 집 주소를 썼다가 답이 없으니까, 완전히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가보다 포기하려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집으로 한 번 썼습니다. 그걸 보고 작은아버지가 85 년도에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작은아버지 말로는 우리 집에 편지가 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연락 방법은 없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군대보다도 못합니다. 군대는 전화라도 할 수 있지만 형제복지원은 전화도 없습니다. 교도소보다도 못합니다. 교도소는 형기라도 있지만 형제복지원은 언제 나간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없어지고 나니까 전국으로 나를 찾으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고아원이란 고아원 다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도 4 남매 중 저를 데리고 가실 정도로 아버지가 저를 엄청 예뻐했습니다(눈물).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3 년 넘게 전국을 다니다가 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골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너 때문에 모든 일 포기 하고 전국 고아원이란 고아원을 안 다녀본 데가 없다. 딱 형제복지원만 안 갔다.” 형제복지원은 고아원이 아니었고 부랑인 보호소니까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셨던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가슴이 찢어 집니다. 형제복지원만 아니면 이런 일을 당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질 일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일도 없었을 텐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가스 배달

퇴소해서 함양 작은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열일곱쯤 됐습니다. 학교라고 다닌 것이 없으니 할 게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사는 동안에 다 빼앗긴 겁니다. 얼마 있다가 친모가 있는 서울로 갔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에 어머니 집인 서울 천호동으로 전입한 것이 1985년 10월 30일로 되

어 있어서 퇴소한 때를 1985년 7~8월 경으로 생각합니다. 맞으면서 단체생활을 해서 그런가 오래전에 헤어져서 그런가, 어머니와 정이 많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일본에 살고 있고 형들도 다 따로 살고 있어서 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는데 몇 개월 지내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다닌 것이 교육의 전부인데 열여덟 살 나이에 어디 가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는 하지 못하고 스스로 먹고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18살에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천호동 파일로트 공장 앞에 있는 가스배달소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가스배달일을 5~6년 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집사람(성삼진, 성지민으로 개명)을 만났습니다. 혼인신고를 94년도에 했고, 딸이 95년에 태어났습니다. 97년에 아들 창빈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삶이 좀 편안해지고 안정이 됐습니다.

형제복지원 출신이라 이혼 요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형제복지원 방송을 하기 전까지 나는 형제복지원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 만났을 때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은 불량인 수용소로 알고 있으니 나를 이상하게 볼까 염려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으니 그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0014년에 아내와 아들이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저에게 알려 줬습니다. 부산에 저런 곳이 있었다고. 듣자마자 심장이 멈추고 얼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기 싫은데, 잊으려고 애썼는데!’ 한참 생각했습니다. ‘밝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집사람과 살면서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본 것이 모두 사실이다. 내가 거기 출신이다. 아무 죄 없이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끌려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집사람이 “피해자는 전화 달라고 방송에 나왔다”라며 전화해 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대책위에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그걸 이해해 주나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데를 가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랑인이 아닌데 왜 내가 부랑인 시설에 있었다는 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을 설명해도 아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가에도 내가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속아서 결혼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다음 해에 이혼하자고 해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까 봐 얘기 안 하고 살았는데 단 한번 이야기한 것이 이혼을 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애들은 나를 이해해 줬습니다. 딸은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아들은 부산 경성대 앞에 있는 식당에서 셰프로 일하는데 지금도 자주 왕래하며 지냅니다. 내가 배운 것 없이 일하느라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들 뒷바라지한다고 정신없이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진상규명의 필요성

집사람하고 이혼하고 나니 내 이야기를 막 내보이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을 테니 제대로 형제복지원을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여성시대’에 사연을 보내서 방송에 나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알렸습니다.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기도 하니 쉽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은 지금은 저를 응원해 줍니다. 이제는 감추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 조금은 마음의 바윗덩어리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죄 없는 어린애들, 나이 먹은 사람들, 병자들이 잡혀가서 고통받은 곳이라고 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 그런 것은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미래를 꿈꿔 보는 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일은 앞으로 잘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된 사과도 받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령비라도 세워주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다 없는 사람들인데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하고 평생 그 여파를 견디며 살았으니, 그에 마땅한 배상도 받고 남은 인생을 고생 없이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만한 회원이 되나요?

어느 날, 후원을 하고 싶은데 후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래 동안 정기후원을 하고 있는 분인데 후원금을 또 내신다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후원인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2012년부터 진실의 힘을 후원하고 계신 설정희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전 어떤 날은 상담자로, 일주일에 한 번은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마을에서는 협동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설정희라고 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오래 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마을 활동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을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부산의 공동육아협동조합에 부모조합원이 되면서부터예요.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도 부모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야하지? 난감해하고 있던 참에 비슷하게 아이를 키우던 친구가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생소하지만 여러 부모들이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방식에 솔깃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둘인데, 11년 동안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함께 자랐어요. 당시 전업주부이기도 했고 제가 관계 지향적인 성향이다 보니 협동조합 부모들과는 친형제 못지 않게 지냈고요, 그렇게 인연이 오래 지속되니 자연스레 마을 공동체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요. 초기에는 부모들 간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로 인해 고단함과 버거움도 있었지만, 다들 어떤 얘기라도 듣고 나누며 문제를 풀어가려는 협력과 소통의 마음들이 더 큰 것을 느끼게 되어 떠날 수가 없었어요. 부모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마을 활동은 더 확장되었어요. 마을 단오제는 협동조합 사람들뿐만 아니라 토박이 마을 사람들까지 함께 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죠. 놀이 속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 즐거움이 중년의 저를 신나고 생기 넘치게 했는데 그게 활동의 동력이 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마을에 친정 엄마처럼, 우렁 각시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제 마음도 딱 그랬어요. 저녁을 앞에 두고 옆 테이블 마을사람들과 인사도 하면서 ‘오늘은 어땠어?’ 안부를 물어보고 ‘큰 애가 키가 더 큰 것 같은데?’ 하며 서로의 자녀를 챙기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편안함과 든든한 정이 느껴지는 공간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밥집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서 그런지 마을사람들이 서로가 알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는 게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뭔가를 제안하면 좋은 결과가 먼저 그려져서 더 신나게 마음을 먹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학교를 만들어가는 일도 마을밥상을 운영하는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마을에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가족의 배려 덕분이었어요. 집에서 엄마와 아내로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마을사람을 만나 복작복작거리며 사부작사부작대는 저의 하루를 인정해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필요할 때 빈 자리가 많았을텐데 기다려주고 허용해준 가족의 사랑이 제일 큰 이유예요. 너무 고마워요.



상담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마을학교라는 배움터에서 돌봄지기를 제안받았는데 그게 딱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두텁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하고 싶은 모임을 열어주고 관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였죠. 당시 저는 어느 정도 마을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니 기꺼이 하겠다 했어요. 그러다 한 4 년쯤 됐을까요? 돌봄지기가 긴 시간을 일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일 자체가 여러 마음을 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았고, 저도 40 대 중반이 넘어서니 1 인 체제로 가는 건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였어요. 마침 활동가 한 분이 더 오시게 되면서 저한테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내 공부야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 마을 사람들하고 부대끼다 보면 에너지가 가라앉을 때가 있고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마을에서 일하면서 안정감은 있는데 제 안에 생기라 할까요? 그런 에너지가 사그라지는 게 제가 싫은 거예요. 소란스럽고 복작대는 제 생각과 마음을 스스로는 괜찮다 하지 않게 되었어요. 스스로 마음을 토닥이고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던 차에 돌파구로 생각한 게 공부였어요.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부모교육을 받다가 상담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해 상담심리학 공부를 시작한 거죠.

무료 상담소를 운영 하고 계신데 상담소를 소개해 주세요.

모든 공부가 그렇겠지만 상담공부는 끝이 없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상담을 공부한 분이 계셨어요. 그 분들 중에 같은 부모조합원이었던 여섯 명이 우리 같이 상담 관련 책도 읽고 공부도 하자, 혹시 모르니 종자돈도 모아보자 하면서 모임을 하나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가족관계나 학교 생활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심리상담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했어요. 제가 마을학교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함께 아이들을 키웠던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마음 보따리를 풀어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의 제안에 다들 기꺼이 한번 해보자 했고 무료심리상담을 진행하게 된 게 마을에서 상담을 펼치게 된

출발이었어요. 그러다 얼마 마을학교에서 진행한 심리상담을 ‘희망교육지구’¹에서 상담비를 지원할테니 계속 이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상담비를 지원받으니 무료상담은 아니에요. 다만 지원받는 대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어서 그 대상이 아니어도 상담소 대관비만 받고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있기는 해요. 상담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이유는 여섯 명의 상담사들이 문턱이 낮은 상담소를 지향하고 있고, 전적으로 상담 활동을 통해 가정 경제를 꾸리지 않아도 되어서 인 것 같아요. 함께 상담을 진행하는 선생님들과 학교등 외부에서 집단 상담을 하고 약간의 상담비를 받는 경우는 여러 단체에 돌아가면서 일시 후원금을 냅니다. 4 월에는 416 재단에 5 월에는 518 재단에 냈구요 이번달에 진실의 힘에 내게 된거죠.

2012 년 5 월부터 진실의 힘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정확하지 않는데 마을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진실의 힘이 활동하는 기사를 봤거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활동들을 읽어보고 후원하게 됐어요. 피해자분들이 버텨낸 시간과 결의, 옹골찬 마음들이 너무나 고맙게 다가왔고 감사했어요. 진실의 힘이 그분들을 지원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걸 보니저 대신 가족이 되어준 것 같더라고요. 후원을 안 할 까닭이 없었어요.

진실의 힘에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얘기를 하자니 너무 부끄러워요. 진실의 힘에 아주 적은 금액을 후원하는데 소개할 만한 회원이 되나 싶었어요. 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웠어요. 마을 일이라는 게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들이 모여 같이 나아가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과장되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도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뷰하는 것이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가 여전히 우리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게

¹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구청이 상호 협약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공교육 혁신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회원들의 모습을 전하면서 가족이 되어주는 진실의 힘을 믿는 마음이 느껴져 용기를 내게 됐어요. 기다려주셔서 제 마음을 정리하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후기] 세월호 교실



지난 4월 20일,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 저자들과 함께 하는 "세월호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함께 해주신 백미경 선생님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백미경(국어교사)

나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은 읽다가 덮다가를 반복하며 읽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 모습이 글을 쫓는 내 시선을 자꾸 붙잡았다. 아이들의 엄마로, 공동체의 성인으로, 그리고 교사로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마음은 복잡하고 참담하다. 지난 10 년간 세월호에 대해 그 무엇이랄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세월호 교실>이 열리는 날은 원래 친구들과 여행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가

지 못하고 <세월호 교실>에 참가했다. 세월호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0년 동안 슬퍼했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읽었지만 여전히 나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왜 '세월호'가 가라 앉았는지, 왜 가라앉는 배를 보면서도 배 안의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는지,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는 것인지, 이번만큼은 분명히 알고 싶었다.

아이들은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단체생활에서 중요하다고 배워왔을 것이다. 그날은, 날씨도 좋았고, 수온도 낮지 않았으며 그들을 구조하러 온 어선들이 주변에 있었다. 배 밖으로 나오기만 했다면 살았을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어라'는 선내 방송의 강제력은 매우 컸을 것이다. 그것은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그날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면 나 또한 그렇게 선내 방송을 믿고 아이들을 다독이며 구조를 기다렸을 것이다. 늘 교내 방송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도록 훈련되어 있는 교사에게 위기상황에서 나오는 방송은 저항할 수 없는 선언이다. 수천 번을 생각해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그 참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닿았을 때 느낀 깊은 절망을 표현할 길이 없다.

<세월호 교실>은 '언제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은 배'가 되기까지의 세월호의 구매와 증개축 과정, 화물을 더 싣기 위해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평형수의 양을 지키지 않는 변칙, 이것을 검사하는 시스템의 부실을 잘 설명해줬다. 세월호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배였는지 이해가 됐다. 어떤 욕망과 안일함이 배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침몰하는 배를 눈 앞에 두고도 체계적인 무능과 무책임으로 해경이 어떻게 구조를 망쳤는지도 알게 되었다.

일부의 진실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다. 정부가 나서서 세번의 조사를 했어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참사를 불러오

는 사회구조를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된다. 현재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세월호 때와 다르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을 수 있는가?



[인사]



안녕하세요, 진실의 힘에 새로 합류한 김경훈입니다. 불성실한 진실의 힘 회원이었다가 이렇게 진실의 힘 출판팀장으로 인사드리니 기분이 묘하네요.

전에는 금속노조에서 선전홍보와 정책 영역에서 3년 6개월, 한겨레출판에서 편집자로 4년 4개월을 일했습니다. 금속노조와 진실의 힘 사무실이 가까운데, 요즘 출근할 때면 아주 먼 길을 돌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멀리 돌아온 만큼 흔들림 없이,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앞으

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에서 낸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은 독자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 책들처럼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책, 진실의 힘이 이제껏 걸어온 길에 부끄럽지 않은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옹호해 온 진실의 힘의 모든 구성원과 회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6 월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2024.6)

강남규 강문민서 강서정 강영숙 강용주 강은옥 강창욱 강형철 고동민 고민경 고제영 곽경란 구미성
구종우 구혜임 권대우 권지윤 김경달 김경순 김경아 김경훈 김권호 김규태 김남섭 김동민 김민희
김병선 김상훈 김선정 김성숙 김성일 김소연 김순영 김시현 김애상 김영희 김용규 김원영 김유심
김은영 김응수 김이슬 김인수 김재명 김정애 김정애 김정우 김정인 김정현 김종규 김종익 김주영
김준성 김지은 김충례 김평호 김학주 김한수 김현무 김현정 김환균 김효정 나백주 노복미 모재연
문장렬 민원식 박계용 박근홍 박노성 박미옥 박보경 박선이 박소희 박수빈 박영란 박옥희 박유리
박윤주 박장락 박정남 박종수 박주홍 박중석 박철홍 박충식 박현진 박형주 배소영 법무법인[유]
지평 서민아 설정희 설정희 손현주 손현철 송소연 송재혁 송지완 신경구 신동규 신동기 신동호
신진숙 심은정 심찬섭 안경호 안금자 안명옥 양경희 양남훈 염은진 오현석 우한철 위정미 유재우
유창진 유현미 윤경희 윤양희 윤택진 윤혜영 이근행 이미정 이민주 이성엽 이옥 이용현 이윤정
이은숙 이은애 이자영 이재범 이정미 이진 이채훈 이춘희 이한솔 이해림 이해선 이해영 이해온
이효림 이희정 임순영 임인자 임혜영 장영아 장윤정 장은교 전원현 정길동 정길화 정남림 정대하
정미란 정미연 정범진 정봉숙 정유진 정윤희 정의로 정종호 정혜경 정희선 조동찬 조미영 조미진
조은희 조일준 채옥희 채환규 최득록 최보람 최성진 최세정 최승남 최승진 최승진 최영아 최은아
최정식 최진민 최진숙 하인숙 하지훈 한정열 한지연 한진영 허연숙 홍순성 황순규

진실의 힘 